

생생한 공상으로 미국 정치를 풍자하다

December 21, 2020 | 노형석 기자

생생한 공상으로 미국 정치를 풍자하다

‘미디어아트 거장’ 제니 홀저 개인전

특제 대리석 벤치는 자개처럼 오묘한 광채를 내뿜었다.

푸른빛, 분홍빛, 보라빛, 금빛 등이 다채롭게 아롱진 벤치 석판 표면 위에 영문 경구가 새겨졌다. ‘PROTECT ME FROM WHAT I WANT’(내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줘)

1965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서 빛났던 문장이 아닌가. 소비 욕망에 찌들어 사는 현대인의 숙명을 일깨우며 3세대 개념 미술가 제니 홀저를 대가로 우뚝 서게 한 경구가 묘비명처럼 묵직한 기제로 대리석에 내려앉아 있었다. 벤치 위 벽에는 대작 회화가 걸렸다. 1984년 2월 미국 내 이란인의 테러 위협에 관해 뒷조사를 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기밀문서 텍스트를 화폭에 옮겨놓고 금박으로 덮은 <XX 8>(2015~2018)이다. 큐비를 뜻하는 시크릿(Secret)이란 단어가 위아래로 찍혀 있다. 정보기관의 무자비한 사찰 정황이 드러난 문서를 활용한 작품이다.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로구 소격동 국제갤러리 케이(K)2-3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미디어아트 거장 제니 홀저(70)의 세 번째 한국 개인전 ‘생생한 공상’을 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정치적 역할의 미학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 전광판 글자로 유명한 작가는 뭇방에도 능하게

‘몰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리고 미군 포로 고문 증언록 활용 등 ‘주특기’ LED 전광판 글자와 함께 사회 비판 회화·조형물 대거 전시

들어박혀 그렸다는 회화와 조형물을 대거 내놓았다. 작가는 자신이 지은 전시 제목을 정치적 비판과 풍자적 감각이 넘치는 산작 회화와 대리석 조형물로 실현한다. 착상만 하면 무엇이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개념미술의 능력을 물질성과 밀어감 충만한 작품을 통해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본전시장인 케이2에는 미국 정치의 치부를 담은 보고서를 화폭으로 수채물감을 들쭉 뭉친 붓을 휘둘러 그린 연작 36점이 걸렸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막후에서 관여했다는 스캔들을 조사한 몰러 특검의 보고서를 확대 프린트한 화폭에 70년대 이래 그려지 않았던 수채 그림을 그렸다. 날카롭고 예민한 선, 튀어나간 물감선, 물방울 형상이 흐릿한 몰러 보고서를 덮는다. 작가는 한국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몰러 보고서를 읽고 엄청난 답답함을 느꼈던 차에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위에 페인팅 작업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들머리의 <XX 8>처럼 201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이른바 ‘검열 회화’도 수채화와 함께 전시장을 채웠다. 미군 특수부대의 포로

고문 증언록 같은 민감한 부분을 검은 블록으로 가린 미국 정부 문서에 금박을 입힌 것이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추상회화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금박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의도일 터다.

케이3 전시장에서 주특기인 전광판 대작 작업을 볼 수 있다. 사방에 놓인 대리석 벤치를 배경으로 막대 모양의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 방방 돌아간다. 전시 공간에서 글자로 표시되는 개념은 물질이 되고 흐름이 된다. 입으로 쏟아내고 손으로 쓰는 단어들은 막대형 전광판에 담겨 수직으로 지우고 내리꽂힌다.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겪어야 각성한다’ ‘가장 실오란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 등과 같은 사유의 문장이 엘이디 화면에 흐르고, 그 아래 육중한 대리석 비석에도 새겨져 관객으로 하여금 손을 짚고 읽도록 한다.

홀저는 작업 형식을 연리하게 조율하는 작가다. 80년대 추상주의를 비집고 포스트모더니즘이 태동할 때, 그는 미술에서 물질성을 없애고 텍스트로 정신과 의식을 강조하는 개념 미술의 전사로서 전광판 아트를 들고나왔다. 70대에 접어들자 이전 거꾸로 물질성을 추구하는 추상 그림과 이진적인 비서 조형물로 문자 텍스트와의 새로운 만남의 통로를 만들었다. 타인과의 소통이 끊기고 전시장가기도 망설여지는 요즘, 기막힌 촉감, 사회 비판적 맥락까지 갖춘 그의 전시는 더욱 솔깃하게 다가온다. 내년 1월31일까지.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사진 국제갤러리 제공



케이2 전시장 들머리에 내걸린 제니 홀저의 그림 <XX 8>(2015~2018).